

## 不整脈에 대한 東醫寶鑑의 판단기준 研究

<sup>1</sup>조미정, <sup>1,2</sup>정현중<sup>1</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sup>2</sup>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A Study of Judgment for Irregular Pulses Referred in *Donguibogam*(東醫寶鑑)<sup>1</sup>Mi-Jeong Jo, <sup>1,2</sup>Hyun-Jong Jung<sup>1</sup>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sup>2</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 : In *Donguibogam*(東醫寶鑑), like a slow pulse with irregular intervals(結脈), an abrupt pulse(促脈) and a slow and weak pulse with regular intervals(代脈), an uneven pulse(瀦脈) is written as a kind of arrhythmia. Such a recognition differs from the present one. In this study, I try to seize the meaning and deliberate whether those expressions are appropriate.

Method :

1. Collect and compare the materials of the above four pulses among documentary records of feeling the pulse for diagnosis.
2. Grasp the aspect and trend of changes.
3. Reason whether records in *Donguibogam*(東醫寶鑑) are proper or not.

Result & Conclusions : *Donguibogam*(東醫寶鑑) written "like a slow pulse with irregular intervals(結脈), an abrupt pulse(促脈) and a slow and weak pulse with regular intervals(代脈), an uneven pulse(瀦脈) is written as a kind of arrhythmia". It is not 'an uneven pulse(瀦脈)' is written about irregularity of pulse, but 'an uneven pulse(瀦脈)' is written about irregularity of the sense able to be felt on the fingertip.

Key words : *Donguibogam*(東醫寶鑑), slow pulse with irregular intervals(結脈), abrupt pulse(促脈), slow and weak pulse with regular intervals(代脈), uneven pulse(瀦脈), arrhythmia

## I. 緒論

脈診은 한의학의 四診(望診, 聞診, 問診, 切診) 中 切診에 속하며 가장 특색 있는 진단 방법으로 韓醫學 이론에서 疾病의 陰陽, 寒熱, 虛實, 表裏를 구분하고, 임상에서 환자의 예후와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脈診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脈診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진찰자의 주관적 감각에 의존하게 되는 특성 때문에 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힘들어서 현재에 있어서는 임상에 적절히 적용하기가 힘들어져 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러한 脈診에 대한 비판은 주로 脈狀의 種類에 대한 것이 많고, 의서마다 내용

이 달라 임상에서 脈狀 구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추정되는 바이다.

이렇게 다양한 脈狀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脈狀의 깊이, 속도, 힘, 폭, 길이 등의 물리적 요소를 분석하려는 유 등<sup>1)</sup>의 연구, 역대 의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脈狀을 脈動, 脈管, 脈形, 脈位, 數, 勢에 따라 다시 구분하려는 박 등<sup>2)</sup>의 연구, 脈管의 두께와 팽창과 수축의 변화, 脈動의 遲數, 혈류량과 속도 등의 12가지 기준으로 脈狀을 정의하려는 이 등<sup>3)</sup>의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모두가 脈狀 구분 기준을 脈管이 차지하는 인체의 공간적 형태의 변형과 시간에 따른 변형의 속도나 규칙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간적 형태의 변형은 매우 다양하며, 해부학적으로 개인차도 많아서 이를 구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시간적인 변화는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다. 위에

접수 • 2013년 10월 01일 수정 • 2013년 11월 10일 채택 • 2013년 10월 25일 교신저자 • 정현중,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 063-850-6978 Fax : 063-850-7324 E-mail : kendu@wku.ac.kr

서 언급한 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적인 변화를 통한 脈狀의 분류를 살펴보면 脈의 빠르고 느림과 규칙성의 여부가 주로 관련되어 있는데, 이 중 脈 박동의 규칙성 여부와 관계된 脈狀은 結, 促, 代의 세 가지였다. 그러나 『東醫寶鑑·雜病·診脈』에 ‘瀯促結代脈皆中止<sup>27)</sup>’라고 언급하고 ‘瀯脈’의 脈狀이 搏動의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른 醫家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瀯脈’, ‘結脈’, ‘促脈’, ‘代脈’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다양한 표현을 분석하여, 『東醫寶鑑』의 ‘瀯促結代脈皆中止’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를 알아보고,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結脈

#### 1) 歷代 醫家들의 표현

(1) 『難經·十八難』<sup>2)</sup>

結脈은 脈이 뛰다가 때때로 한 번 정지하지만, 일정하지 않은 것을 結이라 한다.<sup>1)</sup>

(2) 『脈經』<sup>3)</sup>

結脈은 脈이 완만하게 뛰다가 때때로 한 번 쉬고 다시 뛰는 것이다.<sup>2)</sup>

(3) 『傷寒論·辨脈法』<sup>4)</sup>

脈이 완만하게 뛰다가 때때로 한 번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것을 結脈이라 한다.<sup>3)</sup>

(4) 『千金翼方』<sup>5)</sup>

脈이 뛰다가 중간에 멈추는데 맥을 깊이 눌러서 잡으면 박동수가 줄면서 맥이 뛰는 도중에 멈추었다가, 가볍게 잡으면 박동하는 것이 結脈이다.

(5) 『王叔和脈訣』<sup>6)</sup>

손가락으로 脈을 찾아보면 脈이 오거나 가기도 하며, 脈이 모였다가 바로 돌아가는 것이 結脈이다.<sup>4)</sup>

(6) 『崔嘉彥脈訣』<sup>7)</sup>

促脈과 結脈이 모두 脈이 뛰다가 멈추는데, 促脈은 脈이 빠르게 뛰고 結脈은 느리게 뛰는 경우이다.<sup>5)</sup>

(7) 『察病指南』<sup>8)</sup>

脈의 왕래가 느리고 완만하면서 때때로 한 번 씩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것을 結脈이라고 한다.<sup>6)</sup>

(8) 『脈訣指掌』<sup>9)</sup>

結脈은 脈의 왕래가 느리고 완만하면서 때때로 멈추었다가 다시 박동하는 것이다.<sup>7)</sup>

(9) 『脈訣刊誤』<sup>10)</sup>

脈이 완만하게 뛰다가 때때로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뛰는데 일정치가 않은 것이다.<sup>8)</sup>

(10) 『診家樞要』<sup>11)</sup>

脈이 완만하게 뛰다가 때때로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뛰는 것이 結脈이다.<sup>9)</sup>

1) 結者, 脈來去時一止, 無常數, 名曰結也.

2) 結脈, 往來緩, 時一止, 復來.

3) 脈來緩時一止, 復來者, 名曰結.

4) 指下尋之, 或來或往, 聚而却還, 曰結.

5) 促結俱止, 促數結遲.

6) 往來遲緩時一止復來, 曰結.

7) 結者, 往來遲緩時止更來.

8) 脈來緩時一止復來, 無常數.

(11) 『瀕湖脈學』<sup>12)</sup>

結脈은 脈이 완만하게 뛰다가 때때로 한 번 멈추는 것이다.<sup>10)</sup>

(12) 『醫學入門』<sup>13)</sup>

結脈은 이어지지 않는 脈으로, 脈이 뛰는 데 있어 느리고 완만하면서 때때로 한 번 멈추는 脈이다.<sup>11)</sup>

(13) 『脈語』<sup>14)</sup>

結脈은 느리게 뛰면서 때때로 한 번 멈추는 맥이다.<sup>12)</sup>

(14) 『景岳全書·脈神章』<sup>15)</sup>

結脈은 맥이 뛰다가 갑자기 멈추고,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것을 모두 말한다.<sup>13)</sup>

(15) 『診家正眼』<sup>16)</sup>

結脈의 脈狀은 엉겨서 뭉쳐있는 것으로, 완만하게 뛰다가 때때로 한 번 멈추며, 천천히 느리게 뛰는 것이 손가락에 느껴진다.<sup>14)</sup>

(16) 『脈訣彙辨』<sup>17)</sup>

結脈의 ‘結’은 엉겨서 뭉쳐있는 것을 뜻하는데, 완만하게 뛰다가 때때로 한 번 멈추며, 천천히 느리게 뛰는 것이 손가락에 느껴진다.<sup>15)</sup>

(17) 『診宗三昧』<sup>18)</sup>

結脈은 손가락으로 脈을 잡았을 때 느리고 완만한 가운데 脈이 멈추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뛰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sup>16)</sup>

(18) 『洄溪脈學』<sup>19)</sup>

結脈은 엉겨서 뭉쳐있는 것으로 느리게 뛰면서 잠깐씩 멈춘다.<sup>17)</sup>

(19) 『脈學指南』<sup>20)</sup>

結脈은 뜻하지 않게 脈이 멈추어서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sup>18)</sup>

(20) 『中醫診斷學』<sup>21)</sup>

結脈은 脈이 완만하게 뛰는 사이에 한 번 씩 쉬게 되는 데, 그 쉬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sup>19)</sup>

## 2) 분석

診脈을 하였을 때 脈이 뛰다가 사이에 한 번씩 멈추는 것을 結脈이라고 하는데 異見이 없으나 그 자세한 표현을 살펴보면 크게 脈이 느리고 완만하게 뛰는 도중에 한 번씩 멈추는 경우와 脈이 멈추는 데 있어 불규칙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結脈에 다른 표현으로는 診脈을 할 때에 손에 힘을 주어서 脈을 잡으면 박동수가 줄어들면서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千金翼方』과 脈이 모였다가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王叔和脈訣』의 표현이 있는데, 『千金翼方』은 경우에 따라 脈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이고, 『王叔和脈訣』의 표현은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9) 脈來緩, 時一止, 復來者, 曰結.

10) 結脈緩而時一止.

11) 結, 不續也. 脈來遲緩, 時一止, 曰結.

12) 結, 遲時一止, 曰結.

13) 結脈, 脈來忽止, 止而復起, 總謂之結.

14) 結脈, 體象結爲凝結, 緩時一止, 徐行而怠, 頗得其旨.

15) 結脈, 結爲凝結, 緩時一止, 徐行而怠, 頗得其旨.

16) 結脈者, 指下遲緩中, 頻見歇之, 而少頃復來.

17) 結爲凝結, 遲則暫止.

18) 結似偶停無足數.

19) 結脈, 脈來緩時而一止, 止無定數.

## 2. 促脈

促脈과 結脈이 모두 脈이 뛰다가 멈추는데, 促脈은 脈이 빠르게 뛰고 結脈은 느리게 뛰는 경우이다.<sup>25)</sup>

### 1) 歷代 醫家들의 표현

(1) 『脈經』<sup>3)</sup>

促脈은 脈이 빠르게 뛰면서 때때로 한 번 씩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것이다.<sup>20)</sup>

(2) 『傷寒論·辨脈法』<sup>4)</sup>

脈이 빠르게 뛰면서 때때로 한 번 씩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것이 促脈이다.<sup>21)</sup>

(3) 『千金翼方』<sup>5)</sup>

診脈하면 빠르게 뛰면서 때때로 한 번씩 멈추는 것이 促脈이다.<sup>22)</sup>

(4) 『王叔和脈訣』<sup>6)</sup>

손가락으로 脈을 살피면 寸口가 매우 빠르게 뛰는 것이 促脈이다.<sup>23)</sup>

(5) 『全生指迷方』<sup>22)</sup>

促脈의 모양은 尺部에서 寸口로 오르내리는 것이 빠르지만, 오는 것은 있으나 가는 것은 없는 형태로, 榮衛의 운행이 일정치 않고, 陰氣가 陽氣를 재촉하는 것이다.<sup>24)</sup>

(6) 『崔嘉彥脈訣』<sup>7)</sup>

(7) 『察病指南』<sup>8)</sup>

陽氣가 盛하면 促脈이 되는데, 脈을 잡아보면 매우 빠르게 뛰면서 때때로 쉬었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促脈이다.<sup>26)</sup>

(8) 『脈訣指掌』<sup>9)</sup>

促脈은 脈이 아주 빠르게 뛰면서 때때로 쉬었다가 다시 뛰는 것이다.<sup>27)</sup>

(9) 『診家樞要』<sup>11)</sup>

脈이 빨리 뛰면서 때때로 한 번 그쳤다가 다시 脈이 뛰는 경우가 促脈이다.<sup>28)</sup>

(10) 『醫學綱目』<sup>23)</sup>

促脈은 脈의 박동이 빠르면서 때때로 한 번 그쳤다가 다시 脈이 뛰는 것이다.<sup>29)</sup>

(11) 『四言舉要』<sup>24)</sup>

寸口 部位에서 脈이 빠르게 뛰다가 그치는 것이 있으면 促脈이다.<sup>30)</sup>

(12) 『瀕湖脈學』<sup>12)</sup>

促脈은 脈이 빠르면서 때때로 한 번 그치는데, 절름발이가 걷는 것과 같이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sup>31)</sup>

20) 促脈, 來去數時一止復來.

21) 脈來數時一止, 復來者, 名曰促.

22) 按之來數, 時一止, 名曰促.

23) 指下尋之極數 併居寸口曰促.

24) 促脈之狀, 自尺上下寸口促急, 有來無去, 此榮衛無度數, 陰氣促陽也.

25) 促結俱止, 促數結遲.

26) 陽盛則促, 按之極數, 時止復來, 曰促.

27) 促者, 往來急數, 時止復來.

28) 脈來數時一止, 復來者, 曰促.

29) 促脈, 來去數時一止復來.

30) 數見寸口, 有止爲促.

31) 促脈數而時一止, 如蹶之趣, 徐疾不常.

(13) 『醫學入門』<sup>13)</sup>

促脈은 빠르게 搏動하다가 점차 늦춰지기를 잘 한다.<sup>32)</sup>

(14) 『脈語』<sup>14)</sup>

맥이 빠르게 뛰면서 때때로 한 번 그치는 것이 促脈이다.<sup>33)</sup>

(15) 『診家正眼』<sup>16)</sup>

促脈은 급하게 재촉하는 듯이 脈이 빠르게 뛰면서 때때로 한 번 그치는데,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과 같으며, 병세가 진행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sup>34)</sup>

(16) 『脈訣彙辨』<sup>17)</sup>

促脈은 급하게 재촉하는 듯이 脈이 빠르게 뛰면서 때때로 한 번 그치는데,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과 같으며, 계속 진행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sup>35)</sup>

(17) 『診宗三昧』<sup>18)</sup>

促脈은 脈이 빠르게 뛰면서 갑자기 한 번 씩 그쳤다가 다시 뛰는 것이다.<sup>36)</sup>

(18) 『洄溪脈學』<sup>19)</sup>

促脈은 脈의 박동이 급하게 재촉하듯이 빠르고 때때로 잠깐씩 멈추는 것이다.<sup>37)</sup>

(19) 『脈學指南』<sup>20)</sup>

脈이 빠르게 뛰다가 때때로 그치는 것을 促脈이라고 한다.<sup>38)</sup>

(20) 『中醫診斷學』<sup>21)</sup>

促脈은 脈의 박동이 빠르면서 때때로 한 번 씩 그치는데, 그치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sup>39)</sup>

## 2) 분석

促脈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脈이 빠르게 뛰면서 불규칙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王叔和脈訣』에서는 寸口가 빠르게 뛰는 것이라고 하고, 『瀕湖脈學』과 『醫學入門』에서는 빠르고 느낌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瀕湖脈學』과 『醫學入門』은 박동이 빠르다가 한 순간 느려지게 되면 속도의 차이로 맥이 뛰지 않다가 다시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王叔和脈訣』의 표현은 ‘寸口’를 ‘人迎’에 반대되는 의미나, ‘寸關尺’부위를 대표하는 의미, ‘寸關尺’ 가운데 ‘寸部’를 지칭하는<sup>5)</sup> 어떤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脈狀을 설명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 代脈

### 1) 歷代 醫家들의 표현

(1) 『脈經』<sup>3)</sup>

代脈은 빠르게 박동하다 사이에 脈이 멈추어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어서 다시 박동하는 것으로 結脈이 나타나면 살 수 있으나, 代脈이 나타나면 죽게 된다.<sup>40)</sup>

(2) 『傷寒論·辨脈法』<sup>4)</sup>

脈이 박동하다가 사이에 멈추어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어서 다시 박동하는 것이 代脈인데 陰의 성질을 가

32) 促急來數喜漸寬.  
33) 數時一止曰促.  
34) 促爲急促數時一止, 如趨而蹶進則必死.  
35) 促爲急促數時一止, 如趨而蹶進則必死.  
36) 促脈者, 往來數疾中, 忽一止復來.  
37) 促則急促 數時暫止.  
38) 數中時止名爲促.  
39) 促脈, 脈來數時而一止, 止無定數.  
40) 代脈, 來數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脈結者生, 代者死.

진 脈이다.<sup>41)</sup>

(3) 『千金翼方』<sup>5)</sup>

脈이 뛰다가 멈추어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어서 다시 박동하는 것이 代脈이다.<sup>42)</sup>

(4) 『王叔和脈訣』<sup>6)</sup>

손가락으로 눌러 찾아보면 박동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거듭 찾아보아도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代脈이다.<sup>43)</sup>

(5) 『增注類證活人書』<sup>25)</sup>

脈이 완만하게 박동하다가 사이에 멈추어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어서 다시 박동하는 것을 代脈이라고 한다.<sup>44)</sup>

(6) 『崔嘉彦脈訣』<sup>7)</sup>

促脈과 結脈이 모두 脈이 사이에 멈추는데, 促脈은 脈이 빠르고 結脈은 脈이 느린 차이가 있으나 代脈이 사이에 멈추는 것은 이와 달라서 멈추었다가 돌아오기가 어렵다. 세 가지 脈이 모두 멈추는 특징이 있으므로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sup>45)</sup>

(7) 『察病指南』<sup>8)</sup>

臟腑의 氣가 끊어져 사이에 멈추고 다른 臟腑의 氣가 대신하여 뛰는 것을 代脈이라고 한다.<sup>46)</sup>

(8) 『脈訣指掌』<sup>9)</sup>

代脈은 臟腑의 氣가 끊겨 맥이 사이에 쉬게 되고, 다른 臟腑의 氣가 대신 하는 것이다.<sup>47)</sup>

(9) 『脈訣刊誤』<sup>10)</sup>

代脈이라는 것은 脈이 이미 끊어지고, 다른 脈이 대신하여 이르는 뜻으로, 한 臟腑의 氣가 끊어지고, 다른 臟腑의 氣가 대신하여 이르는 것이다. ‘代’와 ‘止’는 서로 다른데, ‘止’는 누르면 손가락 아래에서 멈추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代’는 갑자기 尺部로 되돌아가 멈추었다가 오랜 후에 비로소 脈이 뛰는 것이니, 이는 사이에 박동이 여러 차례 쉬었다가 다시 박동하는 것이다.<sup>48)</sup>

(10) 『診家樞要』<sup>11)</sup>

代脈은 차례로 바뀌는 것으로, 脈이 박동하다가 사이에 멈추는데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sup>49)</sup>

(11) 『瀕湖脈學』<sup>12)</sup>

박동하다가 사이에 멈추어 되돌아오지 못하다가 다시 박동하는 것을 代脈으로 보아야 한다.<sup>50)</sup>

(12) 『醫學入門』<sup>13)</sup>

代脈은 사이에 멈추어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sup>51)</sup>

(13) 『脈語』<sup>14)</sup>

代脈은 멈추는 것이 일정하여 四時가 바뀌어 대신하는 것과 같이 그 일정함을 잃지 않는다.<sup>52)</sup>

41) 脈來動而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名曰代陰也.

42) 脈動而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名曰代.

43) 指下尋之, 動而復起, 再不能自還, 曰代.

44) 往來緩, 動而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名曰代也.

45) 促結俱止, 促數結遲, 代止不然, 止難回之, 三脈皆止, 當審毫釐.

46) 藏絕中止, 餘藏代動, 曰代.

47) 代者, 藏絕中止, 餘藏代動.

48) 代者, 此脈已絕, 他脈代其至之義, 一藏氣絕, 而他藏之氣代而至也. 代與止異者, 止者, 按之覺於指下而中止, 代者, 忽還尺中停久方來, 則是歇至數動止而復來.

49) 代更代也, 動而中止, 不能自還.

50) 動而中止不能還, 復動因而作代看.

51) 代脈中止不自還.

(14) 『診家正眼』<sup>16)</sup>

代脈은 번갈아 바뀌는 것처럼 멈추는 것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서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매우 오랜 뒤에 다시 된다.<sup>53)</sup>

(15) 『脈訣彙辨』<sup>17)</sup>

代脈은 번갈아 바뀌는 것처럼 멈추는 것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서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매우 오랜 뒤에 다시 된다.<sup>54)</sup>

(16) 『診宗三昧』<sup>18)</sup>

代脈은 脈이 뛰다가 사이에 멈추어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어서 다시 뛰는 것이다.<sup>55)</sup>

(17) 『脈訣秘傳』<sup>26)</sup>

代는 차례로 바뀌는 것으로, 脈이 5번 뛰고 한번 쉬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을 經에서 代脈이라고 하였다. 脈이 7번 뛰고 한번 쉬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도 역시 代脈이라고 하였다.<sup>56)</sup>

(18) 『洄溪脈學』<sup>19)</sup>

代脈은 脈이 뛰다가 사이에 멈추었다가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멈추는 숫자가 일정하다.<sup>57)</sup>

(19) 『脈學指南』<sup>20)</sup>

代脈은 되돌아오지 않다가 곧 다시 이어 진다<sup>58)</sup>

(20) 『中醫診斷學』<sup>21)</sup>

代脈은 脈이 박동하다가 때때로 한 번 멈추는데, 그 멈추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얼마 뒤에 다시 박동한다.<sup>59)</sup>

## 2) 분석

대부분의 설명에서 脈의 박동이 불규칙함을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함(不能自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脈語』, 『診家正眼』, 『脈訣彙辨』, 『洄溪脈學』, 『中醫診斷學』에서는 이에 덧붙여 멈추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止數有常, 止有定數)고 하였고, 『崔嘉彥脈訣』에서는 ‘멈추었다가 돌아오기가 어렵다(止難回之)’고 하였으며, 『察病指南』, 『脈訣指掌』에서는 ‘다른 臟腑의 氣가 대신하여 된다(餘藏代動)’고 하였고, 『脈訣刊誤』에서는 ‘여러 차례 쉬었다가 다시 박동한다(歇至數動止而復來)’고 하였다.

## 4. 滯脈

『脈經』에서 ‘滯脈’이라고 표현한 이후로 滯脈, 澀脈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모두 같은 脈狀으로 보았다.<sup>4)</sup>

### 1) 歷代 醫家들의 표현

(1) 『脈經』<sup>3)</sup>

滯脈은 가늘면서 느려서 박동이 힘겨우면서 흠어지고, 혹은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뛰는 것이다.<sup>60)</sup>

(2) 『千金翼方』<sup>5)</sup>

脈을 잡아보면 促·數·浮·短하여 대나무 껍질을 긁는 것과 같으며, 가볍게 누르면 쉽게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며, 들어가는 것이 많고 나가는 것이 적은 것이 滯脈이다.<sup>61)</sup>

52) 代者, 止而有常, 如四時更代, 而不失其常也.  
53) 代爲禪代, 止有常數, 不能自還, 良久復動  
54) 代爲禪代, 止有常數, 不能自還, 良久復動.  
55) 代脈者, 動而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56) 代更代也, 脈五來一止, 不復增減, 經名曰代. 七來一止, 不復增減, 亦名曰代.  
57) 代則動而中止, 不能自還, 止數有常.  
58) 代因不返即更端.  
59) 代脈, 脈來時見一止, 止有定數, 良久方來.  
60) 滯脈,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

(3) 『王叔和脈訣』<sup>6)</sup>

손가락으로 脈을 찾아보면 있는 것 같으나, 가볍게 누르면 전혀 脈의 박동이 느껴지지 않으니, 먼저는 없는 듯하고 뒤에는 있는 듯하여 돌아오는데 순서가 없는 것이 澹脈이다.<sup>62)</sup>

(4) 『崔嘉彦脈訣』<sup>7)</sup>

비가 모래를 적신 것과 같이 거칠며 짧다.<sup>63)</sup>

(5) 『察病指南』<sup>8)</sup>

澹脈은 가늘고 느려서 박동이 힘겹게 느껴지고 때때로 한번 씩 멈추며, 診脈할 때 가볍게 누르면 잡히고, 힘을 주어 누르면 잡히지 않는다. 診脈하면 빠르면서 떠있는 느낌으로 마치 대나무껍질을 가볍게 칼로 긁는 것 같고, 혹은 규칙성이 일정치 않아 비가 모래를 적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澹脈이라고 한다.<sup>64)</sup>

(6) 『脈訣指掌』<sup>9)</sup>

澹脈은 규칙성이 일정하지 않아 비가 모래를 적시는 것과 같다.<sup>65)</sup>

(7) 『脈訣刊誤』<sup>10)</sup>

脈의 박동이 절록거리는 듯하면서, 꺾끄러우면서 가늘고 느려 매끄럽고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것이다. ‘澹’은 꺾끄러운 것으로 ‘滑’과 상반되는 것이다. ‘대나무 껍질을 칼로 긁는 것 같다’고 한 것은 대나무 껍질이 꺾끄러우면서 마디가 있어서 칼로 긁으면 매끄럽게 나가지 않고 마디를 만나면 걸리게 되므로 澹脈의 박동이 힘겹게 느껴진다는 뜻이며, ‘비가 모래를 적시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모래는 뭉쳐

지지 않는 성질인데, 비가 와서 이를 적셔도 모래는 역시 부서져서 흩어지게 되니, 澹脈의 박동이 흩어져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간혹 한 번 정지하였다가 다시 뿔다’는 것은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어서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結·促·代脈이 정지하는 것과 다르다.<sup>66)</sup>

(8) 『診家樞要』<sup>11)</sup>

澹脈은 매끄럽지 않은 것이다. 脈이 힘없이 가늘고 느려서 박동이 아주 힘겹게 느껴지며, 규칙성이 일정하지 않아 비가 모래를 적시거나, 대나무껍질을 칼로 가볍게 긁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sup>67)</sup>

(9) 『四言舉要』<sup>24)</sup>

脈에 氣運이 없어서 느리면서 가는(細) 것이 澹脈인데, 脈이 박동하는 것이 아주 힘겨워 멈춘 듯 아닌 듯 하며, 短脈과 散脈이 서로 겸한 것이다.<sup>68)</sup>

(10) 『瀕湖脈學』<sup>12)</sup>

가늘고 느리며, 짧고 거칠어서 박동이 힘겹게 느껴지며, 흩어지고 멈춘 듯하여 손에 아주 미약하게 느껴져서, 비가 모래를 적신 것처럼 쉽게 흩어지며, 병든 누에가 뿔잇을 먹듯이 느리면서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다.<sup>69)</sup>

(11) 『醫學入門』<sup>13)</sup>

澹脈은 거칠어서 대나무 껍질을 긁는 것 같다.<sup>70)</sup>

(12) 『脈語』<sup>14)</sup>

脈의 박동이 칼로 대나무 껍질을 긁는 것과 같은 것이

61) 按之促數浮短, 如刮竹皮, 輕手乃得, 重手不離其處, 或多入而少出, 名曰澹.

62) 指下尋之似有, 舉之全無, 前虛後實, 無復次第, 曰澹.

63) 如雨沾沙, 澹難而短.

64) 澹脈, 細而遲, 往來難, 時一止, 輕手乃得, 重手不得, 按之數浮, 如輕刀刮竹皮, 或云參伍不調, 如雨沾沙, 故名曰澹也.

65) 澹者, 參伍不調, 如雨沾沙.

66) 脈來寒澹細而遲, 不能流利圓滑. 澹者澹也, 與滑相反, 如刀刮竹皮, 竹皮澹又有節, 刀刮而行澹, 遇節則倒退, 有澹脈往來難之意, 如雨沾沙, 沙者不聚之物, 雨雖沾之, 其體亦細而散, 有澹脈往來散之意, 或一止復來, 是因澹不流利之止, 與結促代之止不同.

67) 澹不滑也. 虛細而遲, 往來極難, 參伍不調, 如雨沾沙, 如輕刀刮竹然.

68) 脈已無氣, 遲細爲澹, 往來極難, 似止非止, 短散兩兼.

69) 細遲短澹往來難, 散止依稀應指間. 如雨霑沙容易散, 病蠶食葉慢而艱.

70) 澹滯往來刮竹皮.

瀯脈이다.<sup>71)</sup>

(13) 『景岳全書·脈神章』<sup>15)</sup>

瀯脈은 박동이 힘겹고 거칠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느껴져서, 비가 모래를 적신 것 같고, 칼로 대나무를 긁는 것 같은 형상이다.<sup>72)</sup>

(14) 『診家正眼』<sup>16)</sup>

瀯脈은 막혀서 절룩거리는 것처럼 박동하는 것으로 칼로 대나무를 긁는 것과 같으니 遲脈과 細脈과 短脈의 형상이 모두 있는 것이다.<sup>73)</sup>

(15) 『診宗三昧』<sup>18)</sup>

瀯脈은 손가락에 느껴지는 것이 거칠고,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sup>74)</sup>

(16) 『脈訣秘傳』<sup>26)</sup>

瀯脈은 매끄럽지 않고, 힘이 없고 가늘면서 느려 대나무 껍질을 칼로 가볍게 긁는 것과 같은 형상을 말한다.<sup>75)</sup>

(17) 『洄溪脈學』<sup>19)</sup>

瀯脈은 느리면서 짧고, 막혀서 거칠며, 뛰다가 때때로 멈추어서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sup>76)</sup>

(18) 『脈學輯要』<sup>28)</sup>

瀯脈에 있어서 예전에는 한 번 그친다는 說이 없었으나, 王叔和가 혹 한 번 그친다고 한 것을 후세의 脈書들이 대

부분 그 說을 받아들였으나, 明·淸대의 醫家들의 경우는 그 ‘그친다’는 뜻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다. 王叔和가 ‘或’을 붙인 것은 반드시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 瀯脈이 심하게 되면 간혹 한 번 그치기도 한다는 것이지 멈추지 않거나, 반드시 멈춘다는 것은 말한 것은 아니다.<sup>77)</sup>

(19) 『脈學指南』<sup>20)</sup>

박동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瀯脈이다.<sup>78)</sup>

(20) 『中醫診斷學』<sup>21)</sup>

瀯脈은 脈이 느리면서 가늘고, 짧아 박동하는 것이 힘겹고 거칠어서, 매우 매끄럽지 못하다.<sup>79)</sup>

## 2) 분석

대부분의 醫家들이 대나무껍질을 칼로 긁는 느낌(如刀刮竹皮), 모래가 비에 젖어 몽친 느낌(如雨霑沙), 병든 누에가 뽕잎을 힘겹게 먹는 느낌(病蠶食葉) 등의 표현을 통해 脈의 박동이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脈의 속도가 느리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千金翼方』에서는 脈의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察病指南』에서는 느리고, 빠른 경우를 모두 설명하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瀯脈의 불규칙함에 대해서는 『脈經』, 『王叔和脈訣』, 『察病指南』, 『脈訣指掌』, 『脈訣刊誤』, 『診家樞要』, 『四言學要』, 『洄溪脈學』에서 ‘一止復來’, ‘無復次第’, ‘參伍不調(三五不調)’, ‘似止非止’, ‘散止依稀’ 등의 표현을 통해 하고 있으며, 『脈學輯要』에서는 간혹 한 번씩 멈출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박동의 불규칙성에 대해서는 元·明代까지는 많은 언급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불규칙성에 대한 언급

---

71) 脈來如刀刮竹皮之狀, 曰瀯.  
 72) 瀯脈, 往來艱澀, 動不流利, 如雨霑沙, 如刀刮竹, 言其象也.  
 73) 瀯脈蹇滯, 如刀刮竹, 遲細而短, 三象俱足.  
 74) 瀯脈者, 指下瀯滯不前.  
 75) 瀯不滑也, 虛細而遲, 如輕刀刮竹皮之狀, 曰瀯.  
 76) 瀯則遲短瀯滯, 至至帶止, 三五不調.  
 77) 瀯脈, 古無一止之說, 叔和則云 或一止爾, 後世脈書, 多宗其說而明清諸家, 有不及止之義者. 蓋叔和, 下或字則瀯之止, 不必定然. 然瀯之極, 或有一止者, 則其言不止, 亦不可必也.  
 78) 不流利 曰瀯.  
 79) 澁脈, 遲細而短, 往來艱澁, 極不流利.

은 점차로 줄어들어, 『洄溪脈學』 이후로 그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 III. 結論

『東醫寶鑑』은 瀯脈에 대해서 「雜病篇·診脈」에서 ‘瀯促結代脈皆中止’라고 표현하고, 「外形篇·脈」에서 『脈訣』을 인용하여 ‘瀯脈 細而遲 往來難 時一止 然三秋診得瀯爲秋正脈 右手寸口浮短而瀯爲肺正脈 非病脈也<sup>1)</sup>」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인용문은 ‘王叔和’와 ‘崔嘉彥’의 『脈訣』의 내용이 아니었으며, 許浚이 편찬한 『纂圖方論脈訣集成』<sup>27)</sup>에도 이와 일치하는 문장은 보이지 않으며, ‘細而遲 往來難 時一止’의 표현은 『脈經』의 ‘瀯脈,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sup>3)</sup>’와 유사하다. 그리고 『東醫寶鑑·外形·脈』에서 瀯脈의 脈狀을 ‘陰脈也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 又曰 往來瀯滯 如雨沾沙 如輕刀刮竹狀 瀯與瀯同’이라고 되어 있는데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는 『脈經』과 같고 나머지 부분은 다양한 서적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東醫寶鑑·雜病篇』과 『東醫寶鑑·外形篇』 모두 ‘一止’라는 표현을 통해 脈의 박동이 중간에 한번 쉰 쉬면서 불규칙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규칙하게 박동하다고 현재 인식되고 있는 結, 促, 代脈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結脈은 脈이 느리고 완만하게 뛰는 도중에 한 번 쉰, 불규칙하게 멈추는 경우로, 促脈은 빠르게 뛰면서 불규칙하게 멈추거나, 脈의 빠르고 느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로, 代脈은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함(不能自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脈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멈추는 경우로 대부분 표현하고 있어 큰 이견이 없고, 脈狀의 설명도 주로 박동의 규칙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瀯(瀯)脈에 대해서는 ‘박동이 느리고, 매끄럽지

못하며 거칠다’라고 대부분의 醫家들이 표현하고 있으나, 몇몇 醫家들은 ‘一止復來’, ‘無復次第’, ‘參伍不調(三五不調)’, ‘似止非止’, ‘散止依稀’ 등의 표현을 통해 박동의 불규칙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박동의 규칙성 뿐 아니라, 脈管의 긴장감이나 脈管 내부에 흐르는 혈류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손가락에 느껴지는 감각까지 확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結, 促, 代脈은 脈狀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脈의 박동이 불규칙하고 그 성향이 ‘빠른 맥에서 나타나는가?’, ‘느린 맥에서 나타나는가?’와 ‘규칙적으로 박동의 단절이 발생하는가?’의 경우만 구분을 하면 대체적으로 분별이 가능하나, 瀯(瀯)脈의 경우 脈의 박동뿐 아니라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감각까지 동원하여 구분하여야 하므로 結, 促, 代脈의 경우와는 다르게 단순히 脈의 박동을 통해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醫家들이 瀯(瀯)脈을 표현하는데 ‘대나무껍질을 칼로 긁는 느낌(如刀刮竹皮)’, ‘모래가 비에 젖어 뭉친 느낌(如雨霑(沾)沙)’, ‘병든 누에가 뽕잎을 힘겹게 먹는 느낌(病蠶食葉)’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함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을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박동의 불규칙성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인용된 서적들(표1)의 표현을 보면 『脈經』, 『王叔和脈訣』, 『察病指南』, 『脈訣指掌』, 『洄溪脈學』에서는 瀯(瀯)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박동의 불규칙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脈訣指掌』 이후에 박동의 불규칙성을 언급하고 있는 서적은 『洄溪脈學』 뿐이며, 元·明代 이후로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脈訣刊誤』에서는 ‘一止復來, 是因瀯不流利之止, 與結促代之止不同’이라 하여 瀯(瀯)脈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은 박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일정치 않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므로 結, 促, 代脈의 불규칙성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확실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脈訣刊誤』 이후로 瀯(瀯)脈을 설명하는데 박동의 불규칙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사라지는 경향이 보인다.

표 1. 脈診 관련 서적의 연대표

연번	年代	著者	書名	出典
1	東漢以前	秦越人	難經	昭人出版社, 台中, 1980.
2	漢(2C中~3C)	張 機	傷寒論·辨脈法·平脈法	大星文化社, 서울, 1984.
3	西晉(3C)	王 熙	脈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4	唐(455)	孫思邈	千金翼方	大星文化社 影印, 서울, 1984.
5	六朝(未詳)	高陽生	王叔和脈訣	大孚書局, 台南, 1977.
6	宋(1118)	朱 肱	增注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7	宋(12C初)	王 貺	全生指迷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5.
8	宋(12C末)	崔嘉彥	脈訣	大星文化社 影印, 서울, 1983.
9	宋(13C40年代)	施 發	察病指南	上海三聯書店, 上海, 1990.
10	元(1281~1358)	朱震亨	脈訣指掌	上海三聯書店, 上海, 1990.
11	元(未詳)	戴啓宗	脈訣刊誤	大星文化社, 서울, 1995.
12	元(1395)	滑 壽	診家樞要	上海廣益書局, 上海, 1922.
13	明(1320)	樓 英	醫學綱目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14	明(1564)	李言聞	四言學要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9.
15	明(1593)	李時珍	瀕湖脈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9.
16	明(1575)	李 梴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影印, 서울, 1981.
17	明(1584)	吳 崑	脈語	上海書店, 上海, 1986.
18	明(1624)	張介賓	景岳全書	아를로스출판사 影印, 서울, 1994.
19	明(1637)	李仲梓	診家正眼	中國書店, 北京, 1987.
20	淸(1664)	李廷是	脈訣彙辨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85.
21	淸(1689)	張 璐	診宗三昧	金藏書局, 新竹, 1976.
22	淸(1691)	沈李龍	脈訣秘傳	上海三聯書店, 上海, 1990.
23	淸(1693)	徐大椿	洄溪脈學	五洲出版社, 台北, 1983.
24	淸(1723)	林之翰	四診抉微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9.
25	日本寬政七年(1795)	丹波元簡	譯釋脈學輯要	江戶萬笈堂, 東都, 1795.
26	1922	盧敬之	脈學指南	中國書店, 北京, 1987.
27	1989	鄧鐵濤 等	中醫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台北, 1989.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자면 『東醫寶鑑』에서 ‘瀯促結代脈皆中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瀯(澁)脈을 結, 促, 代脈과 같은 不整脈의 한 종류로 판단한 것은 脈의 박동성이 불규칙해서 라기 보다는, 脈管內에 氣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끝에 느껴지는 ‘대나무껍질을 칼로 긁는 느낌(如刀刮竹皮)’, ‘모래가 비에 젖어 뭉친 느낌(如雨霑(沾)沙)’, ‘병든 누에가 뽕잎을 힘겹게 먹는 느낌(病蠶食葉)’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친’ 감각이 脈診을 실시하는 의사의 손끝에서 일정하지 않게 느껴지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東醫寶鑑』의 ‘瀯促結代脈皆中止’라는 표현은 瀯(澁)脈이 脈管의 박동이 불규칙한 不整脈의 개념보다는 진찰자의 손끝에 거칠게 느껴지는 특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서 불규칙하게, 또는 사이에 한 번씩 멈추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感謝의 글

본 논문은 2012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 參考文獻

1. 유현희, 이시우, 이진, 이유정, 김종열. 「문헌을 통한 맥상의 물리적 요소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 ; 21(6) : 1381-1387.
2. 박재원, 김병수, 강정수. 「역대의가의 맥상 분류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 22(6) : 1347-1353.
3. 이주호, 최환수, 김철중. 「맥상분류기준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4 ; 10(1) : 49-61.

4. 성백만. 「脈經 卷一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익산 : 원광대학교. 2000 : 46.
5. 송지청, 정현중, 금경수, 엄동명. 「맥경 중 촌구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2 ; 25(4) : 103.
6. 許浚 著.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 법인문화사. 2011 : 624, 740.
7. 秦越人. 『難經』. 台中 : 昭人出版社. 1980 : 72.
8. 王熙(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1, 2, 3.
9. 張仲景. 『傷寒論』. 서울 : 大星文化社. 1984 : 48, 217.
10. 孫思邈. 『千金翼方』. 서울 : 大星文化社 影印. 1984 : 301.
11. 高陽生. 『王叔和脈訣』. 台南 : 大孚書局. 1977 : 20, 21, 27, 28.
12. 崔嘉彥. 『脈訣』. 서울 : 大星文化社. 1983 : 6, 7.
13. 施發. 『察病指南』. 上海 : 上海三聯書店. 1990 : 13, 19, 20, 21.
14. 朱震亨. 『脈訣指掌』. 上海 : 上海三聯書店. 1990 : 36, 37, 38.
15. 戴啓宗. 『脈訣刊誤』. 서울 : 大星文化社. 1995 : 746-869.
16. 滑壽. 『診家樞要』. 上海 : 癸丑文化社. 1922 : 57.
17. 李時珍. 『瀕湖脈學』.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 34, 63, 64, 65.
18. 李梴.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81 : 384, 386.
19. 吳崑. 『脈語』. 서울 : 大星文化社. 1997 : 23, 32, 33.
20.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 아를로스출판사. 1994 : 93, 94.
21. 李仲梓. 『診家正眼』. 北京 : 中國書店. 1987 : 5, 17, 18, 19.
22. 李廷是. 『脈訣彙辨』. 臺北 : 新文豐出版公司. 1985 : 289, 293, 297.
23. 張璠. 『診宗三昧』. 新竹 : 金藏書局. 1976 : 1079, 1088, 1089.
24. 徐大椿. 『洄溪脈學』. 台北 : 五洲出版社. 1983 : 139.
25. 盧敬之. 『脈學指南』. 北京 : 中國書店. 1987 : 64, 65, 66.
26. 鄧鐵濤 等. 『中醫診斷學』. 台北 : 人民衛生出版社. 1989 : 238, 251, 252, 253.
27. 欽定四庫全書 9卷 中 『全生指迷方』. 174.
28. 樓英. 『醫學綱目』.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9. 李言聞. 『四言舉要』.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 7.
30.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 南山堂. 1987.
31. 沈李龍. 『脈訣秘傳』. 上海 : 上海三聯書店. 1990.
32.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2008 : 294-302.
33. 丹波元簡. 『脈學輯要』. 서울 : 大星文化社. 1997 : 104.